



미국 금융기관들의 저신용 대출 확대에 따른 논란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미국 금융기관들이 금융위기에 따른 대출 관련 손실을 회복한 이후 최근 저신용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,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.

- Capital One, GM capital과 같이 저신용자들에게 대한 할부금융 비중이 높았던 금융기관들은 최근 저신용 대출을 다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HSBC, JP Morgan 등 대형 금융기관도 서브프라임 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- 한편, 신용카드 회사들이 저신용자들에게 발급한 신용카드 개수는 2011년 12월 110만 장으로 전년동월 대비 12.3% 증가하였으며, 자동차 할부대출에서 저신용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4/4분기 17%에서 2011년 4/4분기 23%로 증가함.
- 소비자 단체들은 저신용자들이 습관적으로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출 확대는 금융기관에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함.

■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 이후 규제강화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,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저신용 대출을 확대함.

-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를 통해 만성적인 신용불량자들과 경기침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용이 하락한 고객을 구분하는 방법을 얻었다며 신용이 높은 고객에만 대출을 집중하는 것이 다수의 잠재고객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함.
- 경제학자들도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신용카드와 자동차 할부 연체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은행이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함.
- 대형은행을 감독하는 미 통화감독국(OCC) 관계자도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면 신용 확대에 큰 리스크는 없다고 밝힘.

(New York Times, 4/10)